

5월 17일 포이에마예수교회 가정예배순서지

예배의 부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인도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337장-----	다함께
기 도	-----	가족중
성경봉독	-----야고보서 1:1~8-----	인도자
말 씬	-----시험을 만나거든-----	인도자
말씀암송 및 나눔	-----	인도자
합심기도	-----나라와 가정을 위한 기도----- 가족과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함께
주기도문	-----	다함께

찬양 -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QR코드를 스캔하면 위의 찬양이 연주됩니다.)



성경봉독 - 야고보서 1장 1~8절

-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 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시험을 만나거든 - 2017년 9월 3일 주일예배 설교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우인 목사님 설교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 야고보는 생소한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에서 따온 것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제이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초대 교회 발전을 위해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당하고 육신의 형님 예수님 곁으로 돌아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커온 동생으로부터 존경받는 형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존경은커녕 사이가 나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의 형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고, 그 부탁한 일을 누구보다 훌륭히 수행하고 기꺼이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야고보는 형 예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였고, 목수의 아들이 전혀 새로운 존재, 누구보다 훌륭한 생명의 리더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이라고. 자기 형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형의 중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부탁하신 일을 기꺼이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이런 저런 사념과 회의를 멈추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에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은 확고한 자기 정체성과 분명한 삶의 목적은 출신 성분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박해가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며 전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타종교에 관대하였던 로마까지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배교자들마저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고보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것을 당부하는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야고보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약 1:2) 야고보서를 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아와 질병과 위험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로부터 편지가 도착하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가 일어나 그 편지를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분명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온 회중에게 덮쳤을 것입니다. 온갖 시험에 마음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깊은 회의에 심신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시험은 너무나 두려워 한사코 피하려고만 하였고 하나님까지 원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그동안 단 한 번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편지가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약 1:3)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긴 합니다.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어렵게 해 온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편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말을 들으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곧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4)**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을 찌르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수퍼맨처럼 오셔서 나를 구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온전히 자라나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찾아온 시험과 시련에 올바르게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 하지 말고, 이러실까 저러실까 하늘을 보고 기다리지 말고, 두 마음을 품어 바람에 밀려 요동치지 말고, 세다고 휘두르지 말고, 약하다고 비실대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올바른 것을 구하며, 그 시련을 통하여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배우라는 것인지 깨닫고 또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랑스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님과의 만남으로 버려진 땅 나사렛의 무지렁이에서 교회 지도자가 되어 흔들리는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준 야고보. 그래서 시험과의 만남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침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과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실체와 본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간절한 소원과 애끓는 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나는 시련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재창조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시길, 그분의 가르침에 잘 반응하셔서 세월이 더할수록 아름답고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 함께 생각하기

1.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2. 오늘 우리에게(개인, 가정, 국가) 임한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3. 코로나 19로 인한 오늘 이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 오늘의 암송구절

야고보서 1장 2~3절

-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